

‘正道 지키며 飛上’ 기대

본지 각 위원회 신년교례회 가져



포천신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최호열 발행인과 각 위원회 위원장이 2007년 새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축하케익을 절단하고 있다.



세계일보 조사위원회 포천시협의회 김중현 전 협의회장과 한연사 사무국장인 불우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본지 최호열 발행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포천신문 2007년 신년교례회가 1월8일 12시에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조사위원회, 주부명예기자단, 학생명예기자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발행인, 각 위원장 신년인사말, 신년축하케익 절단식, 성금전달식 순으로 진행된 이날 신년교례회에서 최호열 발행인은 "2006년 포천신문을 인수해 지난 6년여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는 동안 각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정론직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히고 "새해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큰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승수 자문위원장은 "신년회

江流石不轉, 강물은 흘러도 그 안의 돌은 물결따라 이리저리 구르지 않는 것처럼 포천신문이 정치적·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오늘이 지리산에 함께 하신 포천신문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했다.

윤이용 운영위원장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지난해 물심양면으로 포천신문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신 5개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새해에도 내외적 성정을 거듭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중현 조사위원회 고문은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연중 개설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사회의 불우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호 주부명예기자단 고문은 "포천신문을 사랑하는 막강한 위원 여러분들과 신년교례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호열 발행인님과 포천신문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황금돼지해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황금돼지를 안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근원 학생명예기자단장은 "그 동안의 사회는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왔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꿈

을 파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사를 읽었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새해에는 꿈을 키우고 판매하여 큰 소득을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신년축하케익 절단식과 간담과 투병중인 백병기 운영위원장 부위원장에게 운영위원 전원의 정성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

또 세계일보 조사위원회 포천시협의회(회장 김운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전달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돼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상일의 새(鳥) 탐조 ① 두루미

DMZ에서 만난 孤高함

갈수록 환경오염이 심각해져가고 있다. 그동안 인간과 함께 자연속에서 살아온 새들도 환경오염으로 점차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새(鳥)를 찾아서 셔터를 눌러온 사람이 있다. 현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서 덕일주유소를 경영하는 이상일 대표가 바로 주인공이다. 본지는 이 대표가 그동안 촬영해 온 새에 관한 사진과 정보를 연재함으로써 환경보호는 물론 조류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2006년12월10일 철원에서 촬영한 비상하는 두루미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두루미. 1km 떨어진 곳에서도 '뚜루뚜루' 하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서로운 새다. 학(鶴)으로 불리기도 하는 두루미의 깃털은 눈처럼 희고 아름답고 고우며 그 자태가 너무나 우아하며 비상할 때의 내재 깃은 어느 새와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정교하면서도 아름답다. 특히 두루미는 해, 산, 물, 풀, 소나무, 달(구름), 불로초, 거북, 사슴과 더불어 십장생(十長生) 가운데 하나로 고고함과 장수, 어집, 지조와 초연함의 상징이기도 하다.



2006년12월10일 철원에서 촬영한 한가로운 두루미

지난해 12월10일 새벽 5시 밤사이 내린 눈으로 빙판길이 되어 버린 43번 국도를 달려 도착한 철원철벽에는 어둠의 적막함이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루미가 날아들기 전에 미리 위장텐트를 설치하고 그 안에 들어가 기다리기를 1시간 정도 지나니 서서히 밝아오는 동녘하늘엔 벌써 선발대로 쇠기러기 무리가 날아든다.

이어서 두루미가족이 민통선 안에서 잠을 자고 먹이를 찾아 철원철벽아 들녘으로 날아든다. 이들은 보통 암수가 1~2마리의 어린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데, 주로 가족단위로 이동을 한다.

현재가이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들은 아름답고 곱디고운 자태에 매료되어 추운줄도 모르고 공중 일순 손을 호호 불어 가며 카메라로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두루미과에는 전세계적으로 15종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 3종이 겨울을 나고 있다. 두루미는 암수 구분 없고 몸길이는 136cm이며, 몸은 대부분 흰색이

고 눈 앞부분과 목은 검은 색이다. 머리 꼭대기는 붉은색을 띠고, 부리는 황갈색이며 다리는 검은색이다. 어린새의 몸은 적갈색이다.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마친 두루미는 3~4월경 몽골, 러시아 등지로 돌아가 번식을 하게 되는데 평야나 농경지 등에 동지를 만들고 6월경이면 2개의 알을 낳아 암수가 함께 품으며 부화할 때까지 돌봐 번식을 하게 된다.

우리의 비무장지대에서 겨울을 지내는데 그 숫자는 현재 300여 마리 내외로 추정되며 일본의 홋카이도 이즈미에는 약 700여마리가 종족에는 1천여 마리가 월동하고 있다고 한다.

두루미의 춤은 '학춤'이라 하여 매우 우아하고 아름답다. 두루미가 사물을 고백 할때나 상대방을

위험할 때는 공중으로 뛰어오르거나 목을 뒤로 제치면서 뚜루뚜루 소리를 내고 춤을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빙그르르 곱함을 바꾸며 날아오르기도 한다.

이러한 두루미의 동작을 사람들은 학춤이라고 하는데 이 학춤은 구애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들만의 유희이기도 한 것이다.

민족분단의 비극의 땅 DMZ에는 이들의 평화로운 겨울 보금자리가 있고, 자유로이 남북을 넘나들며 두루미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들에게 민통선 일대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좋은 생활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두루미들이 더 많이 나와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포천생태연구소 이상일 017-705-0994



전산화 단층 촬영기(CT) 도입

주민서비스 강화 국군일동병원

국군일동병원(병원장 중령 황태규)은 지난해 12월29일 제5군단장 주관으로 전산화 단층 촬영기(CT)도입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전산화 단층 촬영기(CT) 도입으로 국군일동병원은 자기공명 진단 촬영기(MRI '06. 4월)와 CT장비를 동시에 보유하게 됨으로써 최상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에 설치된 의료영상 전달시스템(PACS, '05. 8월)과 연동

됨으로써 CT, MRI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필름 대신에 컴퓨터에 저장하여 종합 판독 및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환자들의 편리성을 더욱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첨단 의료장비는 국내 대학 병원급에만 도입되어 운영 중인 장비로서 국군장병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여 전투력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군일동병원은 포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서 지역 내 발생한 민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병원 내 사랑나눔 동호회가 결성되어 매

월 불우 이웃을 방문하여 대민 진료 및 봉사활동, 생필품 전달 등 장애인들의 혼란한 운기를 전달하는 파수꾼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어 포천시 사회복지 유공기관으로 부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50년 노선버스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대영정비전문업체**

선진1급정비공업주식회사

▶ 전차중 검사 및 정비 ▶ 견인차 주·야 대기

☎ 주간: 031-531-0808 야간: 010-8789-2172 (위치: 일동레이크 골프장 북쪽 300m 지점)

자매회사: 선진고속, 선진시내버스, 포천교통, 선진고속관광 등 18개사

2007년 한전포천지점 고압단가(소흘·내촌) 공사 협력업체



“열린경영으로 기업의 최고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최 두 열 대표이사



성실시공 · 실력배양 · 주인의식

- 취급공사**
- 공장
 - 병원
 - 가로등
 - APT
 - 상가
 - 인테리어
 - 빌딩
 - 호텔
 - 학교
 - 기계소방
 - 전기소방
 - 신호등 및 기타

고은종합전기(주)

■ 본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 전화 : 031)542-9771 ~ 4 / Fax : 031)542-1115